코로나 대유행 완만한 감소세 전환 정부 내주부터 거리두기 완화 검토

광주·전남 2만5069명 신규 확진
전날 2만9763명보다 4694명 감소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안심 일러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역대급 신규 확진기록을 찍은 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만1362명, 전남 1만 3707명 등 2만5069명이 확진됐다. 이는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전날 2만9763명보다 4694명이 감소한 것이다.

광주에선 요양병원과 복지기관 등 시설 집단감염 관련 신규 확진 비중도 낮아져 2.3%(267명)에 그쳤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환자와의 접촉 등 일상생활 감염이었다.

전남에선 순천 2588명, 여수 2222명, 목포 1787명 등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1620명으로, 전남도내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으로, 40만명대를 기록한 전날(42만4천641명)보다 10만3898명 줄었다. 1주일 전인 24일(39만5532명)보다는 7만4789명 적고,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2주 전 17일(62만1188명)보다는 30만445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오미크론 유행이 급격히 확산하다가 11주 만에 정점을 지난 후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315명으로 전날(1301명)에 이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7일(1216명)부터 사흘 연속 1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부터 13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8일(1007명) 이후 24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 강한 BA.2(스텔스 오미크론)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규모 환자 발생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는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를 열고 내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완화 방안 등을 조율했다. 정부는 이날 조율된 내용을 최종 결정해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 의료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우선은 지속되는 환자치료를 위해 의료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지만, 정점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오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유효성분이 기존 백신 대비 3분의 1 수준인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관광기업 지원센터 8월에 문 연다

문체부 구축 사업 공모 선정
5년간 100억원 관광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광주시, 전북 전주시, 울산시, 경북 경주시를 선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부산, 인천, 대전·세종, 경남 등에 지역센터를 마련했다.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재)광주관광재단에서 운영하며,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시비 50억원)을 투입해 관광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기반 관광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일자리 허브 운영, 기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창업전문가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ICT 기술 융합 관광콘텐츠 발굴, 관광일자리 상담소 운영, 광주형 관광크리에이터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서구 치평동 일원(서구 운천로 247 4층)에 총면적 1271㎡ 규모로 조성하고 오는 8월 개소한다.

센터에는 입주기업 사무실, 방문자 센터, 컨퍼런스룸, 휴게시설, 소회의실, 운영관리 사무실, 상담실, 미디어랩 등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센터 조성을 통해 5년간 지역 관광스타트업 200개, 관광 벤처기업 60개를 발굴하고 관광인재 교육 및 양성 1750명, 관광 일자리 1100여 명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주도 관광혁신 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 관광기업이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밸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인수위 파견

전남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박창환〈사진〉 정무부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 부지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예산총괄과장 등 박 부지사의 오랜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총괄·조정 기능 수행 적임자로 여겨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지사는 앞으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외교·안보·경제·지역균형발전 등 10개 위원회에서 수립한 분과별 국정과제를 취합·조정·확정해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박 부지사가 인수위원회에서 소임을 다하며, 전남도 공약의 국정과제 전환, 미반영된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추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인수위의 지자체 공무원 파견요청에 따라 강상구 부이사관을 현재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파견 중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정책방향 수립 및 국정과제 발굴 등과 함께 전남도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WSJ "한국, 코로나19 풍토병 전환 첫 국가 될 수도"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 극히 낮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처가 코로나19와 공존 방식을 고심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를 전하며 지난 30일(현지시간) 이같이 내다봤다.

WSJ은 한국의 경우 미국, 영국에서 기록된 정점보다 3배나 많은 인구대비 하루 신규확진자가 나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통제 조치가 중단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택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조처라기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WSJ은 "보건 관리들이 최근 그런 대규모 발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를 가장 위험한 전염병 범주에서 하향 조정하려는 새 목표를 앞두고 시작된 보건체계와 인구집단에 대한 시험"이라고 해설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총 4단계)을 현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결핵, 홍역, 수두처럼 2급 이하로 강등되면 확진자 격리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기관도 감염자 발생을 실시간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니카 간디 미국 캘리포니아대 의학과 교수는 "한국이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최초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전망의 근거에 대해 "한국은 성인의 백신 접종률(96%)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공중보건 체계에 신뢰가 높으며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WSJ은 또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한국이 코로나19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을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로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18%이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깝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전남도농업박물관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 내일 첫 개장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지역 주민과의 친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가 4월 2일 올 들어 처음 개장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물관 진입로에 개장하는 주말 농부장터는 농산물 판매부스와 어린이 무료체험 부스를 설치해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고구마, 버섯, 꿀, 장류 등 우수 농산물을 판매한다.

참여자는 박물관 관람도 즐기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는 관광형 장터다.

특히 농업박물관은 장터를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도록 하기 위해 어른들과 함께 장을 보러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해 입춘방 만들기, 점토 마스크걸이, 튜브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현장 예약을 통해 진행한다.

또 개인 SNS에 농부장터 후기를 올려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게시 이벤트도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건물 다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